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보고서

ILSAN SOCIAL WELFARE CENTER 2023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TH
20주년 보고서

ILSAN SOCIAL WELFARE CENTER 2023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보고서

ILSAN SOCIAL WELFARE CENTER 2023

Contents



08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년 발걸음

12
발간사

13
축사



18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나눔이 선순환되도록 돕습니다.

24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웃음이 가득한 마을을 만듭니다.

26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깨끗한 지구를 만듭니다.

28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군가의 희망을 만듭니다.



30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이 단단해지도록 돕습니다.

32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느려도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34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문화를 함께 맞습니다.

36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38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42
20년의 시간을 담은 이용자들의 이야기

44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기관 · 운영법인 소개

46
소중한 나눔의 열매,
후원과 자원봉사의 20년

48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을 마치며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보고서

ILSAN SOCIAL WELFARE CENTER 2023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 전, 일산동에 자리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여행에 함께했던 복지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이들을 만나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추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노래 그리고 웃음.

각자의 이야기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는 따뜻하게 그리고 크게
복지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년 발걸음

2003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예수수도회)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 제1대 장영선 관장 수녀 취임
- 외국인 근로자 의료 및 교육지원사업
- 중·고등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에그리나'

2005



- 학교폭력 예방 사업 및 대책 세미나
- 사회복지 정책세미나, 포럼 등 연구 활동 강화 확대

2006



- 사회복지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강화 (일산백병원, 새빛안과, 일산새마을금고 등)
-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8

- 제2대 남화자 관장 수녀 취임
- 고봉·풍산·식사 거점센터 개소
- 열린마음상담센터 개소
- 경로당 활성화 사업 풍동, 식사동 지역 확대
- 조손 가정 지원 사업



2004



- 외국인근로자 축구대회
- 청소년 집단상담 '분노 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 취약계층 노인 도시락 서비스 시작

2007



- 사랑 나눔 바자회
- 한나래지역아동센터 개소
- 학교폭력 예방사업 초등학교 확대
- 경로당활성화사업(고양시노인복지기금) 선정



2009



- 고양환경지킴이 학교
- 청소년 자살 예방 상담 네트워크 구축사업
- 한여름날의 김장나눔 페스티벌

2010



- 사회복지 포럼 개최(통합사례관리, 청소년 자살예방)
- 환경사업 확대:
- 지역주민 생태체험활동 및 장월평천 네트워크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함께 살아가는 세상' 전화 상담
- 고양시복지드림 사례기관 지정 (일산권역센터, 풍산권역센터)

2011



- 그린나래 청소년 동아리
- 저소득 발달·행동장애 아동 가족지원사업 '누리보듬'
- 조손가정 조부모 지원 프로그램 확대 '조부모의 노래울'

2012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한울마루
- 제1회 와야촌 나눔 축제
- 사회복지포럼
- '재가 조손가정서비스 발전방안' 개최

2015



- 제3대 이정우 관장 신부 취임
- 친환경 텃밭동아리 '초록먹거리'
- 이마트와 함께 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 법률사무소 '동행' 업무 협약
- 주민 법률상담 서비스

2016



- 장애아동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신체쑥쑥 창의쑥쑥'
-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및 가족에 형성을 위한 '밥상공동체'
- 저소득 남성노인 식생활 자립 지원 '청춘밥상'
-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상위 10%) 등급 선정

2019



- 우리마을 환경보호프로젝트 '에코시너지(Eco Synergy)'
- 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숨은마음찾기'
- 청소년 역사인식 함양을 위한 '우리 동네 역사탐방'
-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사업 'All Friends'

2020



- 주민공동체사업 '마음토닥이'
- 느린학습자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성 및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 '달달스쿨'
- 코로나 상황에 맞춘 비대면 온라인 사업 진행 (온라인버자회, 방구석 노래자랑, ON마을에서 놀자 등)

2013



- 위탁운영 법인 변경(대건카리타스)
-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상위 10%) 등급 선정
- 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나우나래 서포터즈'
- 지역 청소년오케스트라 연계 '피로도 같이' 정기음악회

2014



- 주민 독서동아리 '북을올려라'
- 나눔 활동을 통한 조선족 인식개선 및 삶의 만족감 향상을 위한 '귀한동포' 사업

2017



- 주민제안 사업 '폐품의 재탄생 -똑딱똑딱 공방'
-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수요미식회 푸드트럭축제'
- 가족기능강화 사업 '배움을 통한 행복한 가족만들기'

2018



- 제4대 양성필 관장 취임
- 일산시장 연합사업 '우리마을 플리마켓'
-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 꿈 디자이너, 오감으로 만나는 문학이야기 등 아동 청소년 사업 확대
- 기획세미나 '웹툰으로 보는 청소년의 성'

2021



- 마을기록사업 '마을다미'
- 가족여가 지원 사업 '우리 가족 지구지킴이'
- 경영컨설팅을 통한 미션, 비전 재수립
-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고양 든든밥상'

2022



- 제5대 최찬영 관장 신부 취임
- 초등학생 환경융합활동 '초록융합교실'
- 1인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및 안전망 구축사업 '중장년-이음'
- 송편 온정 나눔 한마당 축제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선정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발간사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최찬영(마르코) 신부

어느덧,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벽면에 걸려있는 사진 액자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복지관이 20년 동안 걸어왔던 기록이 소중하게 담긴 사진들을 보며 20년의 세월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2003년 개관 후, 많은 것들이 어려웠을 초창기부터 튼튼하게 자리 잡아나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던 건 많은 분의 노고와 헌신,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젊고 청춘인 직원들이지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이곳에서 보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동반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수많은 직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서로 나누고 마음을 더해주셨던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곳곳에서 많은 분의 노고가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눔을 베풀어주시고, 복지관과 연을 맺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복지관은 새롭게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합니다. 2003년, 복지관이 처음 운영될 당시의 마음가짐과 복지관이 해야 할 역할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반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앞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장 최찬영(마르코) 신부

축사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상임이사 **도현우(안토니오) 신부**

개관 20주년을 즈음하여 복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의 수고와 도움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수 있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보다 나은 20년을 염두에 두고 복지 현황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구상 역시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의 대한민국 복지 현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여러 지표가 알려주듯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이 벌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는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당연한 예측이기도 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과 민간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출을 보면 복지국가와 거리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사회적 지출은 21.1%인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30%를 넘겼지만 한국은 14.8%에 머물면서 멕시코, 튀르키예와 함께 최하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 축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국민이 빈곤에 빠지지 않고 소득 상실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공공부조는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취약계층을 선별해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보건, 의료,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이 세 가지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금 급여는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지,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현재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시설의 3% 남짓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인데, 만족스러운 돌봄을 받고자 한다면 높은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구조임

니다.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가라고 한다면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제공자가 시장에서 경쟁하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견 역시 이윤 목적인 시장화와 사회보장이란 두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97%가 민간으로 구성된 요양 서비스 기관이 진작에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소규모 시설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장화·산업화, 경쟁의 효율화를 강조한 결과는 아닌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가난함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고, 노인 빈곤율이 40%에 달하는 현실에서 취약 계층 복지는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약자 복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인식입니다. 복지국가는 교육, 의료, 노후, 고용, 주거 등 모든 국민의 기본 필요를 사회가 책임지는 보편적 보장체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약계층만이 현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도 사회보험과 같은 현금지원 제도가 없다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진 복지국가 대부분이 보편적 현금지원정책을 제도화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복지사업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기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는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시장자본주의가 완벽하지 못해 복지가 태어난 것이고, 복지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데도, 사회보장과 같은 복지사업을 대폭 민간 쪽으로 산업화·시장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금과 복지지출을 줄이면서도 국민 모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이들이 있지만, 세상에 그런 복지국가는 아직까지 어느 곳에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국가의 축소판, 즉 복지 지자체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시라는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단체인 대건카리타스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고양시의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지를 지금까지처럼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관계자 모든 분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자비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상임이사 도현우(안토니오) 신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보고서

ILSAN SOCIAL WELFARE CENTER 2023





서로를 돕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
우리는 사람을 통해 그 마음과 사랑을 배우며
많은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지와 격려의 손길을,
새로운 출발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웃으며 보낸 즐거운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복지관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문화,
가족 여가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지역주민의 끝없는 배움을 응원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나의 두 번째 학교예요_ 교육문화

복지관이 개관한 2003년, 교육문화 사업은 아동을 위한 발레, 미술 등의 강좌와 성인을 위한 탁구, 가요교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한국무용, 컴퓨터교실 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유입을 도모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며 새로운 취미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개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교육문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뵈 때마다 교육문화사업은 배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느낍니다.

2014년, 고양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어느 곳에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는 이념 아래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들은 수강생들은 강사와 함께 요양원, 경로당 등에 방문하여 무료로 공연하기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없는 배움이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교육문화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노래자랑, 온라인 강사간담회, 유튜브 운영 등 전화로, 문자로, 화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문화 사업의 도입을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끊어지지 않았던 관계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교육문화사업을 통해 만난 인연들은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친한 친구가, 이웃이 되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복지관으로 놀러가요_ 가족 여가 지원

2006년부터 주 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말 프로그램 욕구가 생겨났고, 가족 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즉각 반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놀토’라고 불리던 노는 토요일에 복지관으로 모인 가족들은 다양한 만들기와 체험, 문화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가족여가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가족을 대상으로 볼링, 탁구 등 레저스포츠를 진행하는 '우리 동네 예체능'과 기존에 진행하던 가족 여가 프로그램이 통합·확대된 '꿈지락꿈지락 토요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었고,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복지관의 환경 보호 정신을 반영하여 '우리 가족 지구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생태 및 환경 교육과

외부 생태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환경 지식 체득과 가족들의 친밀감 향상을 도왔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운영 욕구가 드러나 2018년에는 우리가족 지구지킴이 운영 기간을 늘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처럼 늘 지역주민 옆에 함께하며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천사

주말가족여가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일

2012년~2014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모·자녀간의 결속력 강화

토요
가족극장

2012년~2014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영화상영 및 공연을 제공
하여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

교육문화사업

교육
문화사업

2003년~현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
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및
삶의 질 향상

우리
동네 예체능

2015년~2018년

·건강한 가족여가문화형성을
통해 구성원 각각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꿈지락
꿈지락
토요일

2015년~2018년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 증진

우리가족
지구지킴이

2017년~현재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 및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 교육문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1,386,955명

☑ 가족여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4,914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나눔이 선순환되도록 돕습니다.



사람을 위한 마음이 모여,
아낌없는 사랑으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20년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후원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3년, 박○옥 후원자님을 시작으로 총 열네분의 후원자분들이 복지관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329명, 20년이 지난 2023년에는 311명의 후원자님이 사랑을 나눠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눔의 문화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 교육 및 캠페인을 2010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까지 교육 및 캠페인에 약 1천여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함께해 주셨으며, 2016년부터는 풀뿌리 모금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100원 나눔 봉사단' 및 '다솜누리' 등의 후원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며 복지관 후원사업을 지역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11명의 후원자분들과 시작한 CMS 후원이 현재는 92명의 후원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우리 복지관에 사랑을 보내 주시는 만큼 복지관에서는 소중한 후원금을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후원 행사 및 주요 후원 내용을 후

원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감사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연 2회 감사 편지와 소식지 발송을 통해 1년간 사용된 후원금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양시지도점검(회계감사) 및 법인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2022년에 진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에서도 후원금 사용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후원 활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기부자의 욕구를 모두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후원이 되고, 원하는 곳에 후원을 하는 기획 후원도 운영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순환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안에서 누구나 쉽게 후원에 참여하고, 그 나눔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바자회를 넘어,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로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후원행사, 바로 '바자회'입니다.

복지관이 20년 동안 성장한 만큼 바자회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 처음으로 진행한 '사랑나눔-음식,문화 바자회'에는 지역주민분들을 비롯하여 인근 군부대, 부녀회, 성당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셨고 복지관 이용자분들의 노래자랑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후원 업체, 자원봉사자분들의 사랑으로 2년마다 '사랑나눔-음식,문화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이마트 탄현점이 복지관 바자회 후원처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큰 후원처인 이마트와 처음 손잡게 된 바자회였습니다.

2017년부터 복지관 바자회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수요미식회-푸드트럭축

제'는 직접 후원받은 음식을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것이 아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업체와 연계한 바자회였습니다. 이날 발생한 푸드트럭 수익금은 일정 금액을 복지관에 기부함으로써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비정기적 후원처였던 이마트도 복지관과 정식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바자회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9년에는 복지관이 아닌 이마트타운 키텍스점 광장에서 플리마켓과 함께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자회를 위해 티켓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마트 서부권역 6개 지점(키텍스점, 일산점, 풍산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트레이더스 키텍스점)과 함께 연합바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바자회를 시행하며 영역을 확대하였고 2022년에는 이마트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 외 10개의 지역 업체와 함께 연합하며 진정한 연합바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6년 저소득 아동 복지사업 활성화 지원을 시작으로 바자회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 가정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노인주간보호 이용자 이동권 확보, 복지관 시설환경 정비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수익금을 사용하여 지역내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내 업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만남의 장소가 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바자회는 앞으로도 진정한 지역축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원봉사 후 제일 많이 변화된

것은 내 자신 같아요.”

안미경 자원봉사자

활동기간 : 2005년~현재

자원봉사를 시작한 계기

☞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에 방문한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당시 관장수녀님과 친분이 있어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저에게 “선생님, 점심시간 전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 해보는건 어때요?”라고 봉사활동을 권유해주셨어요. 왜 저한테 권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오전에 마땅히 할 일도 없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한 동기

☞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봉사활동 권유를 받았을 때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봉사활동 못하겠다고 말씀드릴까?’,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과 친해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 ‘내가 엄청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 고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면서 부담감도 사라졌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 후 달라진 점

☞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아서 소극적이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어르신을 만나다 보니 지금은 제가 먼저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여쭙는 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또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는데,

봉사활동 시작 이후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제 자신도 점점 밝아지니 제 아이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에피소드

☞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식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모두 어렵고 힘든 분들이었지만 그 분한테는 이유 없이 유독 마음이 갔어요. 파지나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 팔던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을 돕고자 개인적으로 후라이팬, 캔을 모아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철을 드려도 일정 무게가 아니면 고물상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르신이 내가 드린 물품을 무겁게 들고 다니셨겠구나!’ 싶었어요.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가 부담만 드린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시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자원봉이란?

☞ 저에게 자원봉사는 감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많은 응원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복지관에 다니면서 뿌듯하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벅찬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런 기회를 준 복지관에 정말로 감사해요.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봉사활동도 일상이 됐어요.”

이저훈 자원봉사자
활동기간 : 2005년~현재



자원봉사를 시작한 계기

복지관 개관 당시 관장수녀님이 고양시 성당들에 연락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안내해주셨어요. 그때 지인 중 한 명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저에게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고 권유하여 저도 지인을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한 동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 나도 저런 노력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으로 1년, 2년을 봉사활동하다 보니 벌써 18년이 되어버렸네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러 오면 초대 관장 수녀님께서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때는 봉사자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따뜻한 기억이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유지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 후 달라진 점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봉사활동 한다는 것을 숨겼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지인들이 “오늘 뭐해?”라고 물으면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미 모를 시선들로 바라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오늘

뭐해?”라고 물으면 떳떳하게 봉사활동 하러 간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오늘 봉사가는구나! 잘하고 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봉사 가는 날이지?”라고 말하며 시간을 배려해주기도 해요. 오래 활동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한다고 소문이 났나봐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에피소드

봉사활동 초기에 일산역 기차길 옆 오두막에 사시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사고를 당하셨는지 양쪽 다리가 없었는데 도도시락 배달을 위해 어르신 댁에 가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맞이해주셨어요.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특별하고 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은 일상에 스며들어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긴 한데 봉사활동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봉사활동도 일상이 됐어요.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웃음이 가득한 마을을 만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민 공동체를 회복시켜나가는 활동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마을만들기'입니다.

개관 초기 주민 대상 지역복지 교육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주민조직화사업은 2012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과 유흥업소 등 안전이 취약한 일산 구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한울마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을 조사하여 마을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마을 내 우범지대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동체 활동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은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지원 영역으로 확장되어 밀반찬 서비스 등 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공동체와 주체성을 높이는 주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교육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강화된 주민역량을 바탕으로 한울마루는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변화·확장되었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캠페인을 개선하고 직접 주민교육 강사가 되어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역 전체로 확산해 나갔습니다.

사업 변천사

한울마루,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012년~2016년

· 주민 주도에 의한 지역사회
현안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과 주민 주체성 확장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2017년~2018년

· 접근하기 쉬운 주제의 주민
모임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
여와 관계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회복

마음토닥이,
마을다미

2019년~현재

· 함께 누리고 즐기는 사회적
자본의 공유와 사회적 유대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사회안전망구축사업 한울마루

참여 주민

4,868명

☞ 마음토닥이 참여 주민

865명

☞ 마을기록사업 마을다미 참여 주민

538명



2017년부터는 각각의 활동들이 별도의 주민 소모임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운봉사단, 자원 재순환 공동체 아름드리 그 외 청년 네트워크 공감한끼, 주민 독서동아리, 주민 인문학 모임, 캘리그래피 동아리 등 주민 욕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진행됩니다. 소모임들은 욕구 변화에 따라 확장되거나 사라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민 인문학 모임의 경우 인문학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확장되기를 희망하였고 주민이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는 '마음토닥이'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음토닥이 사업을 통해 참여 주민들이 홀몸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말벗 상담과 미술놀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마을 만들기와 주민공동체 사업은 주민 욕구와 지역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운영됩니다. 2020년부터는 재개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일산 구도심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마을기록사업 '마을다미'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기록가들이 변화하는 우리 마을과 일상의 우리 마을을 기록하고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과 전시회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마을이 단순히 거주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웃과 관계 맺고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우리' 동네, 물리적인 환경도가꾸어나가는 '우리'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뚝!’, ‘뚝!’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조금 어려워요.”

2009년, 복지관 문을 두들긴 가족봉사단의 한 손이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사업의 첫 발이 되었습니다. 획 버려지는 쓰레기와 몰래 방류된 폐수로 썩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 ‘우리라도 나서자.’며 모였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그린나래 가족봉사단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함께 하천을 보호할 이웃들의 손이 필요해요.”

드넓은 하천을 청소하고 가꾸기엔 그린나래 가족봉사단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월평천 살리기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군 부대, 학교, 부녀회, 기업(스타벅스, 이마트, 국민연금공단, 삼성화재 등)과 같이 환경보호에 뜻을 지닌 다양한 단체들에 손을 내밀었고, 그 손들이 맞닿으며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 마을의 하천이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민들의 구슬땀이 모여 하천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민과 다양한 생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호는 나부터 실천해야해요.”

우리의 손이 닿을 때마다 점차 깨끗해지는 하천을 보며, 환경보호 실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모여, 다양한 환경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마을 하천 지킴이’라는 미션 아래 모인 그린나래 가족봉사단을 필두로 2011년 주민자치 환경소모임(환경 이슈 스터디 및 환경 감사 양성), 2016년 업사이클링 공방 아름드리, 2017년 친환경 텃밭 동아리 초록먹거리, 2019년 유해 물질 감시단 그린가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 우리가 지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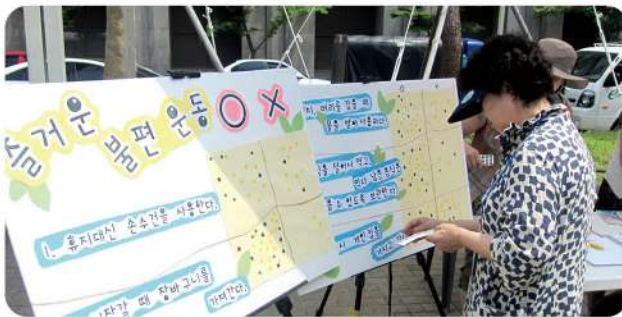
일상 속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주부들을 중심으로 환경 공동체가 운영되던 중, 청소년의 환경 의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래세대가 짊어질 환경오염의 대가에 대해 호소하는 목소리는 곧 전 세계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 지금이라도 지키자.’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나부터'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감, '지금이라도'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 복지관에서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일상 속 유해 물질에 대해 배운 케로로(Chemical No No)스쿨, 환경-코딩 융합활동 에코딩(Eco-ding), 환경-생태탐구 융합활동 철새탐구대, 환경-창의 융합활동 토이업(Toy Up)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환경 이슈에 대해 배우고,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환경보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대형 산불, 감염병, 미세먼지. 다른 나라, 옆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 손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 변천사

하천 네트워크

2009년~2020년

- 지역사회내환경보호에관심 있는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하천 보호 활동 지원

친환경 주민 공동체

2011년~현재

- 환경친화적 인식을 지닌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그린나래 가족봉사단, 주민 자치 환경소모임, 아름드리, 그린가드, 초록먹거리 등)

초록 융합 교실

2019년~현재

- 미래세대의 환경 친화적 인식 강화를 위한 환경 융합 활동 지원 (에코딩, 토이업, 철새탐구대 등)

☑ 우리마을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행동한 주민

20,789명

☑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실천

1,325회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군가의 희망을 만듭니다.



신도시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5일장이 설 정도로 북적거리던 동네는 어느덧 '본 일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이 해야 하는 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웃을 수 있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를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성당 등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봉사자님들의 도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들여다보고 건강과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무료급식 서비스인 사랑나눔식당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말고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도 운영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 아이들 점점 늘어나면서 2011년에 지역아동센터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해보고, 나들이도 가며 아이들이 구김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핸드벨로 행사 때 공연을 하기도 하고, 주산 암산 자격증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점차 줄어드는 아이들로 인해 2016년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그 순간들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먼 거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

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봉동, 풍산동, 식사동은 복지관이 위치한 일산동에서 거리가 멀기에 복지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지역사회로 들어가 풍산거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3명이 상주하며 복지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풍산동, 고봉동, 식사동에 사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던 풍산거점센터도 신규 복지관, 커뮤니티센터 개소 등으로 인해 복지관이 담당하여야 할 지역에 변화가 생기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사업을 만들기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복지관의 이런 고민이 주민분들에게 작은 웃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변천사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2003년~현재

·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일상생활, 음식, 의료, 여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만족도를 향상

한나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방과 후 교실)

2003년~2016년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 및 교육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절감

풍산거점센터

2008년~2021년

·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외곽 지역인 고봉동, 풍산동, 식사동 지역주민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및 여가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에
참여한 이용자

991,335명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이 단단해지도록 돕습니다.



흔히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야기하며, 가족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세대 차이 및 가치관 갈등이 심각할 경우 가족 해체가 나타나기도 하며, 사고 및 사망으로 가족 구성원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가족 내 문제는 구성원 개인의 불안을 높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 복지관은 가족의 약해진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03년 개관과 함께 시작된 가족기능강화 사업은 수년간 알코올 중독, 이혼 위기 등 가정 내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그 당시, 높아진 이혼율로 인해 이혼숙려기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복지관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상담, 치료적 개입, 교육, 캠프 등을 통하여 가족 해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2010년 부모-자녀 관계 회복이 필요한 한부모가족과 갈등을 겪는 부부 세대를 함께 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가족기능강화·회복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가족 간의 유대가 높아졌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임으로 혼자가기
이라는 위안과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소통
의 장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알코올 중
독 문제를 겪는 가정 배우자와 자녀까지 사
업 참여자로 확대하여 많은 가족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
족 간의 갈등이 있지만 소통 방법을 모르고
여가를 함께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을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했
습니다. 부모교육을 통한 한부모 가정의 자
녀 양육 학습과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프 등 가족이 따로, 또 같이 활동

하며 단단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특히 자립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여성가장 자립 지원사업'
을 별도로 운영하여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
닌 본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근로의 기
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여가 활동이 힘든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가족 텃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가족들
은 가족 구성원 그리고 복지관과 함께 고
민을 해결하였고,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
더라도 이겨내는 힘을 키워갔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또래 아이들처럼
다양한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소 부족
할 수 있는 추억을 풍성하게 만들고, 가족이
란 단어를 보더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
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
지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
께하겠습니다.



사업 변천사

가족기능 강화사업

2003년~2009년

· 알코올 중독, 이혼 위기 가
정 등 가정 내 문제에 직면
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
료적 개입

가족기능 강화·회복사업

2010년~2012년

·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족
들에게 다각적인 교육을 통
해 해체를 최소화하고, 가족
응집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여성 가정자립지원 사업

2014년

· 저소득 여성 가정의 자립을
위한 기술 향상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013년~2018년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제
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
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

☑ 가족기능 강화·회복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4,338명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3,030명

☑ 여성가장 자립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124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느려도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 한 명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에 해당하는 크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아동이 성인으로 자라나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마을이 필요할까요? 한 가정에 장애 아동이 태어나면 그 가족은 장애 발달 단계에서 오는 긴장감,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돌봄 부족 등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2003년 복지관 개관과 함께 시작된 성요셉발달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을 위해 언어, 인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발달을 돕고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9만 건이 넘는 치료가 진행되어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형제의 건강한 삶을 지원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의 아이 돌봄은 비장애인 아동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2014년 성요셉발달지원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 돌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



습니다. 2015년~2016년을 거치며 돌봄 프로그램 외에 과학 교실, 요리 교실 등으로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장애 아동에게는 다양한 체험을, 그 가족에게는 돌봄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부모 집단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함께 교류하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2017년~2019년에는 ‘신체 쑥쑥 창의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 교실, 승마 교실, 부모 독서테라피 등과 비장애 형제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사의 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 경계선 지능 아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들이란 지능 검사 결과 IQ가 70~85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인해 학습이 느리고 사회적 인지가 낮은 아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학교, 친구 관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 ‘달려라 달팽이 스



쿨(달달스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기초 학습, 사회
성 프로그램, 부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 지연 아동, 장애 아동, 그리고 경계선 지능 아동이 건강하
게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 이상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
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느려도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 변천사

성요셉
발달지원센터

2003년~현재

· 발달 장애, 지연, 정서적 어
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
로 전문 치료를 제공하여 건
강한 발달 촉진

장애 아동
지원 사업

2014년~2019년

·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
족 기능을 강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

2020년~현재

· 비장애와 장애의 사각지대
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
합적 지원

☑ 성요셉발달지원센터에 참여한 이용자

90,401명

☑ 장애아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2,278명

☑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814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문화를 함께 잇습니다.

복지관 주변을 보면 다른 나라 말이 써진 가게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정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지관이 개관했던 20년 전에는 부족한 제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그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리 마을에 수많은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복지관의 외국인 지원 사업은 이런 시각에서 시작합니다.

첫 발은 당시 사회 이슈였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었습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급격히 유입된 외국인 수에 비해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복지관은 한글 교실·문화 교육·체육 활동 등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근로자들의 소통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환경, 변화, 그리고 당사자들의 욕구가 조화되어 아름다운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근로자인 만큼 복지관 사업에 참여할 시간은 점점 부족해졌고 이에 외국인 근로자 사업도 자연스럽게 소강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결혼이주 여성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많았지만, 그 여성들을 위한 복지기관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복지관에서는 한글교실·문화체험·다문화 이해교육·가족기능 강화교육·다문화아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복지관은 수년 동안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전문기관 출연과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복지관은 새로운 대상과 형태의 외국인 지원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시리아난민, 제주 난민사태와 같은 난민 관련 이슈가 우리 사회에 대두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재)바보의나눔' 지원으로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찾아 지원하고 법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또한 연구 활동과 세미나, 캠페인 등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개관 후 현재까지 복지관은 외국인 관련 사회적 이슈와 현상, 그리고 당사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사업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외국인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지 않지만,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국적·인종·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편견없이 문화와 문화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사업 변천사

외국인근로자 지원

2003년~2007년

-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에서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

2007년~2018년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이해 및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 도모
- 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유대감 증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다문화 아동 지원

2017년~2019년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탈피하고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2019년~2021년

-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긴급 지원
- 사각지대 이주민 인식 개선, 연구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사각지대 이주민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

79,409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복지관에서 첫 시행한 청소년 사업은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이수해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검사, 자기탐색 프로그램,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행동을 파악·이해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학교사회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마다 “선생님!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사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이 학교 체벌과 사회봉사 명령 처벌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복지관이 아이들 스스로 내면을 바라보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복지관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다양한 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가치관과 행동 규범의 붕괴로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에 심각성을 느껴, 2005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산 지역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와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가정·학교·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관 자체 강사단을 양성했습니다. 일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학생, 부모 교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캠페인·개별상담·분노조절 집단프로그램·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

사업 변천사

학교사회사업

2003년~2014년

- 인근 학교와 연계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체성 확립 지원

학교폭력예방 사업

2005년~2010년

-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단 인력풀 구성 및 학교별 예방교육 활동 지원
-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사업

2010년~2018년

-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존중 의식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활동 지원
- 학부모-교사-지역주민들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문제 대한 인식개선 교육활동과 캠페인 진행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

2018년~현재

- 미디어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전문교육 제공 및 영상제작 활동 지원
- 미디어분야의 진로탐색 및 청소년 간의 또래관계 향상 증진

☞ 학교사회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4,397명

☞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31,907명

☞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지역주민, 전문가

33,291명

☞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역주민

4,089명

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활발히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서 나아가 자살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강사단 및 전화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에게 전화·온라인·면접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과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민감성을 제고했습니다.

복지관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변화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끼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위한 세부적인 성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 '일삼스타'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생겨나는 요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미디어 기술을 습득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

스로 설계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들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들이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복지관이 일산동에 자리잡았던 2003년, 복지관에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아침 일찍 어르신 쉼터 ‘사랑방’에 모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집에 계시기보다는, 복지관에 오셔서 어르신들과 서로 정답게 안부를 물어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혼자 TV를 시청하시며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관은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도록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웃음 교실, 미술 교실, 노래 교실, 영화감상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께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

스러워졌고, 복지관에 오시는 시간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으로 접어들며 어르신들께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관 개관 이후 매일 식사하러 오셨던 60대 중반의 어르신들은 어느새 모두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며 반갑게 손 인사를 하셨던 어르신들의 손에는 하나둘씩 지팡이가 생겼습니다. 쇠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쭈시며 안아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픈 곳만 이야기하셨던 어르신들께서는 하나둘씩 소풍 갔던 이야기,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배운 이야기, 영화관에 갔던 이야기를 하시며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생겼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후회되는 지난날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관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겪는 내일을 위해 노년맛이 교육을 진행하였고, 어르신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원에 교실, 만들기 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께서는 자녀한테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복지관에 오십니다. 자녀한테는 부담이 될까봐 하시지 못했던 말씀을 사회복지사에게는 “자녀 같아서”라며 이야기하십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 곁에서 때로는 친구처럼, 자녀처럼, 손주처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변천사

어르신 사랑방

2003년~2009년

·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고독감을 완화하고 삶의 활력 도모

4고(苦) 해결 프로그램

2010년~2014년

· 4고(고독고, 병고, 빈고, 무위고)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아름다운 노년, 내 안의 청춘

2015년~2018년

·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독감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목 도모

웰에이징 온점학교

2019년~현재

·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삶의 활력 증진

☞ 어르신 사랑방, 4고(苦) 해결 프로그램, 아름다운 노년, 내 안의 청춘, 웰에이징 온점학교에 참여한 이용자

39,582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보고서

ILSAN SOCIAL WELFARE CENTER 2023





이제 우리는 20년의 성장을 마쳤습니다.
성장기를 지나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복지관,
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복지관이 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담은 이용자들의 이야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친절한 복지사 선생님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힐링이 됩니다. 20주년 축하해요.

-임애현



20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덕분에 질 좋은 교육을 부담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직원분들 다들 친절하시고 정말 좋으세요. 계속 저희 아이들과 함께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정나영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낮은 곳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과 일산복지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약은 늘 첫걸음부터 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화이팅!

-김영아



우리 마을에 복지관이 있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복지관 근무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해바라기



동네에 좋은 복지관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는데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태교로 리본아트 수업을 시작으로 복지관과 인연이 되어 아이의 발레 수업, 피아노를 지나 지금은 요가 수업까지~~ 복지관이 가깝고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또 우리 동네와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우리 동네 자랑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민서엄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꼭 50년 이상 한자리에서 자리매김하길 응원합니다. 아이들이 복지관 다니는 걸 즐거워해서 정말 기분 좋고 복지관에게 고맙습니다~!

-초코주



20년 동안 모든 직원들의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열의!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주신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끼며 바른 인사성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 자랑입니다.

-강민귀



20살 되었네요♡ 어른이 되어가네요~ 축하드리구요~ 저는 복지관 덕분에 봉사도 하고, 이 나이에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피아노, 라인댄스, 웰빙, 한국무용을 배웠어요. 좋은 선생님, 회원분들도 만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 박영희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일산의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사 선생님의 열정과 배려로 오래 활동할 수 있었고 든든합니다^^.

- 이미선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벌써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이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중년이 되어 눈가에 얼핏 주름도 보이는 듯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점심드시러 오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날부터 한 분씩 두 분씩 보이지 않을 때 안타까움이 마음을 따갑게 했습니다. 시스템이 조금씩 보완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들이 가듯 병아리 눈물만큼 봉사해 온 중산성당 교우 김봉신 카타리나가 감히 축하문 올립니다.

- 김봉신 카타리나



방문 때마다 웃음 넘치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 우영미



복지관 20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탁구부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좋으신 분들을 만나 즐겁게 운동하다 보니 10년이 되었네요. 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 리모델링해서 우리의 놀이터를 사용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새 단장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복지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입니다. 복지관이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후배 세대까지 많이 이용되며 행복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 은하철도999



60살에 만나 80살이 된 복지관과 나의 인연! 장영선 수녀님, 남화자 수녀님, 이정우 신부님, 양성필관장님 그리고 현재의 최찬영 신부님! 많은 직원들도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 사랑으로 보듬어준 우리 복지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 강순자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월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직접 반갑게 대해주시니 보람이 배가되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 윤성훈 다니엘

기관 소개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요

기관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일산동)
개관일 2003년 4월 3일
규모 건물 : 7,094㎡ (2,150평) / 부지 : 3,787㎡ (1,146평)

미션&비전

MISSION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마을

VISION



운영 법인 소개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CARITAS DAEGUN

설립이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가난의 영성을 살아간다.

VISION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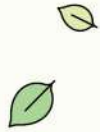


사업분야

아동·청소년복지 / 장애인복지 / 여성복지 / 지역복지

소중한 나눔의 열매, 후원과 자원봉사의 20년





지난 20년간, 함께한 후원 **37,189**회
사랑으로 나누는 금액 **4,634,417,274**원(후원금 기준)

지난 20년간, 함께한 자원봉사 활동 **117,656**회
사랑으로 나누는 시간 **290,027**시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와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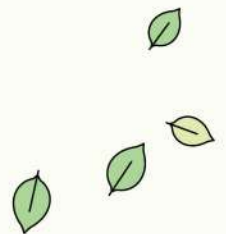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해봅니다.

복지관이라는 새싹에 후원자, 자원봉사자님이 아낌없이 뿌려주신 소중한 물과 햇빛이 있습니다.
그 새싹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소중한 마음과 함께 성장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열매는 또 다시 다른 새싹이 되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갑니다.
그 여러 그루의 나무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갈 쉼터를,
누군가가 먹을 열매를,
누군가가 뛰어놀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주신 후원과 자원봉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1시간 혹은 10,000원을 나누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큰 나눔, 그저 고맙습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지나온 20년을 넘어, 다가올 20년.

더욱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며
이곳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발행인 최찬영

편집인 박상화

제 작 문화공감

주 소 1035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일산동)

전 화 031-975-3322

팩 스 031-975-3305

홈페이지 www.jlsanwelfare.or.kr



카카오톡



유튜브



발간등록번호

일산종북-2023-002